

<2010년 9월 1일 수요말씀>

생각하고 보아야 보고 알 수 있다

본 문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24장 32-36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진실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생각을 집중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얼마나 생각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느냐에 따라 또 다른 차원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인생의 승리를 하고 영혼의 승리를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료1> 나 예수의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잘 들어라. 내 말은 생명이니 마음과 목숨을 다해 생각을 집중하여 들어라. 누구든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각을 집중하고 진실로 듣는 자만이 내가 진실로 말하는 생명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내 말은 영원불변하다. **<자료2>**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가 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참말도 했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내 말을 잘 듣되 생각을 집중하고 들어야 뇌에 기록된다.

이번 주일말씀에 말하기를 모든 일들은 마치 시계 시침이나 분침같이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기에 눈으로 봐도 안 보이니 실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하여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때가 가는지, 땅의 너희들의 때가 가는지도 모른다.

<자료3> 계절의 때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무에 잎이 피면 봄이 온 것이고, 그 잎이 다 피고 다 크면 여름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계절은 나무를 보면 알고, 하늘의 때인 나의 재림의 때와 세상 말세의 때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말세의 때에는 여러 징조들이 각 민족 여기저기에 일어난다. 계절의 때는 나무를 보고 알듯이, 나의 재림의 때와 세상 말세의 때는 세상 징조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땅에서도 징조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나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이를 보고 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이다.

땅에 속한 징조란, 처처에 기근·지진·홍수·태풍·전쟁·더위·추위·각종 전염병·경제파동·화재 등 여러 재난들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속한 하늘의 징조란, 세상에 나의 때를 알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들게 하고 사랑의 신부로 단장시켜 나 예수를 맞게 하기 위해 나의 재림을 가르치고 외치는 각종 표적과 징조들이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너희가 흔히 말하는 말세임을 알아라.

시대마다 말세가 있고 그 시대 주관마다 말세가 있다. 그리고 전체 시대적인 말세가 있는 것이다.

<자료4> 이 시대는 신약역사의 끝이 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때로서 나의 재림이 시작된 시대다.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2000년 동안 신약역사를 펴 왔듯이, 내가 다시 재림하는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 1000년 동안 나의 재림의 말씀으로 성약역사를 펴 나게 된다.

시대가 바뀌면 옛 것은, 심판으로 깨끗이 청산되기도 하고 새 시대의 재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도 한다.

너희가 잘 알고 깨닫고 실감하라고 알기 쉽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 어떤 일들이 천천히 오고 천천히 진행되니 눈으로 봐도 안 보여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천천히 오고 가고 진행되니 육의 눈에 표가 나게 안 보여도 자세히 보고 정신을 집중하여 살피고 깨달으려 하면 모두 다 알 수 있다.

<자료5> 가령 어떤 자가 너에게서 50m 떨어져 있는데 눈에 느껴지지 않게 천천히 다가온다고 하자. 눈으로 보고 느껴지지 않아도 시간마다 거리를 재 보면 알 것이 아니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만 표준하지 말고 자로 재 보고 여러 가지로 철저히 확인하면 알게 된다.

<자료6> 눈으로 보는 것만 표준하기 때문에 나의 때가 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항상 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에 나의 때가 왔어도 모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만 표준하지 말고 자로 재 보고 여러 가지로 확인하라고 했다. 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자로 재는 것과 같다.

너희는 나의 역사를 배우고, 지난날 나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행한 일을 찾아보아라. 섭리역사 30년 전부터 이같이 되도록 역사해 오지 않았느냐. 자연성전을 만들어 쓰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인 이곳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며 길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재림을 앞두고 와서 말세에 온 지구 세상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매일 보아도 다 볼 수 없이 많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어떤 일들이 천천히 진행되니 눈에 표가 나게 보이지 않아 실감하지 못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른다. <자료7> 아무리 크게 이루어져도, 아무리 표가 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다.

가령 어느 한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자. 그 지진이 말세에 해당되는 징조인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봤다면 눈으로만 보았지 생각하지 않고 보았기에 근본을 깨닫지 못하여 뇌, 즉 마음에 입력되지 못한다.

너희는 지난날에나 현재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자료8> 가령 시장에 가기 전에 어떤 물건을 꼭 구경하고 값도 물어 보겠다고 계획하고 갔다 하자. 그런데 시장에 가서 다른 일을 보다가 잊어버리고 그만이야 집에 와서 그 생각이 났다. 시장에 가서 눈으로는 그 물건을 봤지만 생각하지 않고 보았기에 뇌에 저장이 안 되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하고 봐야 후에 그것이 눈에 안 보여도 그 생긴 모양이 다 기억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사실을 두고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봐야 깨달아지고 뇌에 저장되고 녹화되는 것이다.

세상 말세와 나의 재림을 두고 일어나는 세상의 수십여 가지 징조도 너희가 나의 뜻을 배우고 알고, 내가 말한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보아야 ‘지금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징조구나.’ 확신하고 충격 받아 나 예수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예비하게 된다. 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겠느냐.

<자료9> 내 육신의 몸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나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보니 나를 보아도 몰랐고 내 말을 들어도 몰랐던 것이다.

<자료10>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왔을 때 나와 대화하며 먼저 물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며 메시지를 생각하고 메시아에게 물었다. 그러니 내가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로다.” 말하지 않았

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봐야 소경이 눈을 뜨고 보듯이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마음의 귀가 열려 들리게 되고, 뇌에 입력이 되어 늘 생각할 때마다 마치 녹화해 놓은 것을 보듯이 생각나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어 배우지 않고 나에게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말세에 대해 듣거나 매일 징조와 상황을 보아도 뇌, 즉 마음에 남지 않아 아예 듣지 않은 자와 똑같은 것이다.

이 위급한 때, 지구 세상에 각종 징조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어떤 나라에는 전쟁이 오고, 어떤 나라에는 태풍이 오고, 어떤 나라에는 지진이 오고, 어떤 나라에는 홍수가 오고, 어떤 나라에는 전염병이 돌고, 어떤 나라에는 흉년이 들고, 어떤 나라에는 가뭄이 드는 등 각종 재난들이 오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오기 때문에 모른다. 또 빨리 와도 모르고, 크게 와서 눈으로 봐도 모른다. 이는 생각에서 잊어버리고 보고 듣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든지, 혹은 생각에서 잊어버리고 보고 들으면 보고 들어도 모르는 것이다.

<자료11> 이는 비디오를 찍을 때 렌즈 뚜껑을 닫아 놓고 찍으면 아무것도 안 찍히는 것과 같고, 또 뚜껑을 열어 놓았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찍으면 아무리 찍어도 안 찍히는 것과 같고, 또 스위치를 켜 놓았어도 'play'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찍는 것과 같아서 10년, 100년 찍어도 안 찍히고 전혀 남는 것이 없듯이 생각하지 않고 보고 들으면 평생 보고 들어도 모른다. 사람의 생각은 바로 내가 지금 말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

항상 가르치는 자는 듣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도록 전초를 해 놓고, ‘그 목적인 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줘야 한다. ‘그것’에 대해 듣는 자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3일, 일주일, 한 달을 들어도 모른다.

배우는 자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지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가 다 가르쳐 주어 다 배웠어도 배운 자의 뇌와 마음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나.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나. 이를 보고 나 예수는 주인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의 말을 듣고 내 심정을 알고 꼭 말씀대로 행하여라. 먼저 생각을 하게 한 후에 이 시대 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제대로 깨닫고 시대 징조도 알고 나의 재림도 알아 예비하는 자가 된다. 이같이 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르쳐 놓아도 의식 없이 자기 길로 가니 늘 이 사람, 저 사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가르치는 자가 근본을 생각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제 온 신입생들까지 날개가 나서 혼자 날아다닌다. 시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신앙생활 한 지 3년, 7년, 10년, 20년 됐어도 힘이 없고, 교회 다니다가 나가고, 교회에 다녀도 패기가 없고,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을 받아도 집회 때만 순간 감동받고 끝나게 된다.

나의 생명의 말씀은 주일과 수요일에 잘 들어야 하며, 또 나를 중심한 집회 때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내가 지금 한 말들을 잘 듣고 깨닫고 확신에 서서 행하면 신같이 된다. 나의 말을 생각하며 듣고, 마음에 새기고, 뇌에 저장하고, 확신 있게 행하면서 전하면 신이 된다.

늘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보기를 축복한다. <자료12> 그래야 머리에 저장되어 늘 생각하게 된다. 너희가 지난날에 생각하지 않고 본 것들이 지금 머리에 남아 있느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본 것만 머리에 남아 그때 본 것을 말해 주게 되지 않느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또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도 그 시간에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고 말하고 오지 않느냐.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면, 생각하지 않고 보고 말한 것은 보고 말했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생각해야 뇌에 저장되어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뇌 공부를 하여라. 하나님이 어떤 원리와 어떤 이치로 뇌를 창조하셨는지 그 구조와 역할을 자세히 배워라. 의사들도 사람들에게 뇌에 대해 가르쳐 주어라. <자료12 다시 보기>

너희가 나 예수를 보아도 평소 생각한 것을 그 순간 기억하고 생각하고 보아야 내 얼굴도, 형상도, 몸도 자세히 알게 된다. <자료13> 너희 선생은 경험이 많고 이에 대하여 잘 아니까 너희가 영계에 와서 나를 보거나 성령님을 보면 이것저것 잊지 말고 생각하여 하나하나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세히 봐야 모르는 자에게 자세히 말해 줄 수 있다. 영계에서 나를 보거나 성령님을 보면 놀라서 모습만 쳐다보다가 사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잊고 그냥 육계로 돌아간 후에 그제야 말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다 보고 왔는데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보았기에 보기는 보았어도 듣기는 들었어도 영의 뇌에 저장되지 않아 보고 들은 것을 육의 몸인 마음이나 생각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깊이 기도하여 나 예수와 대화하게 되었어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여 물을 것을 묻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여 내가 그 차원급의 대화를 하지 못하기도 한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나 예수가 너에게 가서 1:1로 말해도 모른다. <자료14>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늘 핸드폰을 켜 놓고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가 찾을 때 나와 대화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 생각이 나 예수를 향하고 있으면 그 차원에 해당되게 내가 역사하고 함께한다. 나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대하면 나도 사랑으로 역사하고, 나를 말씀으로 생각하고 대하며 마음을 쏟으면 나도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같이 나를 생각하고 대하는 대로 역사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만 삶이 살아지게 된다. 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행하여라. 무슨 생각을 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날그날 너희 운명이 좌우된다.

이 급한 시대에 ‘생각하고 살아라.’ 말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 않은 때 주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온다는 것이다. 어떤 자는 생각했을 때 내가 오기도 한다. 생각했을 때 내가 왔으니 참으로 복 있는 자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나를 맞게 하여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맞으려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는 나와 상관없으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오는지 생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라. 그냥 생각만 하고 사는 자들은 내가 오고 가도 모르고 인생 끝나고 마는 자들이다.

<자료15>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쯤이 되면 종은 등불을 켜 들고 문 뒤에 지켜 서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눅 12:35-38). 그래야 주인이 노크하면 음성을 확인하고 즉시 문을 따 주지 않느냐. 지금은 종 시대도 아니고, 자녀 시대도 아니고, 신부 시대다. 신랑이 2010년 이상 준비하고 왔는데 신부들이 자기 당세 기간에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를 맞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겠느냐.

이 시대 나 예수가 어떤 몸으로, 너희와 어떤 관계로 오는지 생각하고 알고 준비하고 맞는 자는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나 예수는 온 인류 앞에 신랑의 입장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오지만 나를 준비하고 맞는 자들이 생각하고 나를 대하는 차원대로 맞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며 믿고 나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나가다가 누가 “여기에 물이 있어요!” 하고 외친다고 길가의 물 떠 먹듯 맞는 것이 아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일생의 배필로 맞을 때는 평소에 그 남자만을 사랑하고 모시고 정성을 쏟고 그 말에 순종하고 살다가 사랑의 대상으로 맞아 살지 않느냐. 인생 잠깐 동안 사는데도 이같이 하다가 서로 한 몸

되어 사는데, 나 예수를 맞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너희는 사전에 나의 말을 듣고 진실로 나를 사랑하며 내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상에서 이같이 살다가 나의 재림을 맞아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16>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생명의 말을 해 주는 것이다.

<자료17>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자연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을 말하며 정신 수련을 할 때도 지난날에 길러 왔던 소나무들과 관리해 왔던 바위들을 말하여 모두 생각나게 하고, 그에 대해 말을 하니 너희 뇌와 마음에 지금도 저장되고 녹화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배우고 알아서 뇌에 저장되고 기록된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Y자 소나무를 생각하고 보고 배우니 깨달아지지 않았느냐. 지금 그 소나무 이야기를 하니 훨씬 머리에 떠오르지 않느냐. Y자 소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떠오르지 않느냐. 그 밖에 다른 사연들도 떠오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나 예수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들어야 뇌에 저장되어 말할 때마다 늘 떠올라서 행하게 된다.

<자료18> 환난 날에 나를 찾지 말고 지금 편안한 때 나를 찾아라. 그래야 환난 날에 내가 네 목소리를 듣고 생소해하지 않고 마치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듯이 신랑이 신부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하며 천사를 보내고 도울 자를 보내어 돕고, 때로는 내가 직접 가서 돕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나 예수를 찾고 부르고 사랑하며, 앞날을 생각하고 지금 삶의 차원을 높여 가며 그날을 피하는 삶을 살 때다. 생각하면서 내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각종 징조들을 보고 들으면 나의 때를 더욱 알게 되고 예비하게 된다.

<자료19> 나 예수를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나의 이때를 배우고 생각하는 너희가 되기를 축복한다. 너희들의 생각이 온전히 살아나 부활되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